한국경마, 변해야 산다

'매출 70%' 장외발매소 사실상 휴업 홍콩·일본 온라인 발매로 위기 돌파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전국에 27개의 장외 발매소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코 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 예 방을 위한 실내 대중 밀집시설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장외발매소는 사실 상 현재 개점휴업 상태이다.

그동안 경마 매출의 70%를 차지했던 장외발매소가 영업을 못하면서 경마는 심각한 매출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현 행 체제에서는 오프라인 발매 외에 경마 매출을 발생시킬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 문이다.

해외 국가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장 외발매소를 닫아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 지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이미 온라 인을 통한 베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무관중 경마를 진행하면서도 매출을 거 두고 있다. 홍콩의 경우 코로나19가 덮

친 2019~2020년 시즌의 매출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일본 역시 2019년 대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총 매출이 오 히려 2.8% 상승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가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해외 국가 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 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해외 국가들 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는 IT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장외발매소에 서 겪었던 혼잡이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컸다.

일본은 2002년 인터넷 발매 도입 초 기만 해도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 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총 매출의 70.5%를 온라인 에서 올리고 있다. 같은 시기 장외발매 소의 매출은 26.7%까지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 는 온라인 발매 매출 비중이 92.7%까지 상승하며 일본 경마 매출의 대부분을 차 지했다. 장외발매소의 비중은 반대로 6.7 %로 줄었다.

경마의 전체 매출은 유지하면서 장외 발매소에 올리던 매출이 온라인으로 옮 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외발매소, 지역친화적 레저시설 진화

국내에서도 그동안 장외발매소에 편 중된 매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해당 지역사회에 사회공 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많은 노력 을 해 왔지만, 도심에 있는 특정시설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 다보니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늘 존재했 다. 그래서 앞으로 장외발매소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장외 발매소 규모 조정기준 등 건전화 방안 수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경마공 원이나 장외발매소 방문이 곤란한 이용 자들에게 온라인이라는 수단을 대안으

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매출 총량 유지를 하면서 장외발매소 규모를 조정하는 일 종의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다.

장외발매소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는 장외발매소라는 개념의 변화도 이끌어 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장외발 매소를 지역사회 친화적인 승마·레저 기 능이 융합된 소규모 레저시설로 탈바꿈 하고 건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해 지역사 회와 공존이 가능한 시설로 재탄생시키 는 것이다.

경마산업이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 화하는 시기에 맞춰 장외발매소 역시 지 역사회를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경마시행 100주 년을 앞둔 우리 경마 산업이 오프라인에 서 온라인, 그리고 언택트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오프 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발매 환경을 위한 온라인 체제 도 입과 장외발매소의 여가·레저 시설 변화 를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마

9

마사회, 경영개선 TF 발족 송철희 회장대행 진두지휘

김우남 회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직무대행체제(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 대행)로 들어간 한국마사회 가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개선 TF'를 발 족했다. 6월 발표된 2020년 기관경영평가에서 역대 가 장 저조한 E등급을 받는 등 조직 전반의 위기 상황에 대 응하기 위함이다.

송철희 회장 직무대행이 팀장으로 진두지휘하고 정부 시책 추진 등을 담당하는 사회적가치경영처장이 부팀장 을 맡는다. 팀원을 경영 기획 및 관리 분야와 주요 사업 부장들로 구성해 마사회 전 부문에 걸쳐 강도 높은 경영 개선, 사업성과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최근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및 그간 누적되어 온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등 현재의 경 영위기 원인들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극복을 위한 과 제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마사회, 말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논의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1차 일 자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마사회는 매년 말산업 관련 일 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관련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일 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산학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마사회형 일 자리 지수 개발 필요성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마 사회는 향후 일자리 창출 계획에 근거한 다양한 일자리 확보와 개선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마사회-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바로마켓' 협력



한국마사회는 25일 한국농 식품법인연합회와 업무협 약을 체결(사진)했다. 한국 농식품법인연합회는 농식 품 법인단체 전문법인으로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리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바로

전곡

정품 제품

SCAN Herrory C)

7 8 9 0

마켓의 운영사다. 양 기관은 앞으로 바로마켓에 라이브 커머스를 접목해 입점농가의 온라인 판로개척 및 관련 일자리 발굴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마의 건전성 강화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해 바로마켓 입 점농가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 용자보호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O SCAN Harroy C)

2 3 4 5 6 7 8 9 0

'25년 연속 합격' 마사회 도핑검사 세계서 인정

1, 2, 3위 경주마 시료 채취 의무 AORC 국제시험서 공신력 증명 국제협력 통해 도핑 예방에 앞장

최근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예능프로 그램인 tvn '식스센스'에 '하루 종일 말 소 변만 받는 직업'이 등장했다. 휘파람 소리 로 말의 소변을 유도하던 '시료채취사'의 존 재는 진짜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 소속인 시료채 취사는 하루 평균 약 17두의 경주마 소변 샘플을 채취한다. 경주에서 1, 2, 3위를 차 지한 경주마들은 경주 직후 의무적으로 도 핑검사소로 이동해 시료채취에 응해야한 다. 도핑검사소는 경주 전후 채취한 소변 과 혈액 샘플을 통해 약 700여 종의 금지약 물을 검사한다. 검출된 약물의 종류와 고의 성, 검출 횟수에 따라 경주마 관계자는 과 태료부터 면허취소. 형사처벌까지 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

'도핑(Dopping)'의 어원은 남아프리카 원 이나 앞선다. 주민들이 흥분제로 사용한 술인 '돕(dop)'

에서 비롯된다. 도핑은 흥분제를 포함한 각 종 약물을 통해 신체 능력을 부당하게 향 상하는 행위를 뜻한다. 흔히 도핑이라 하 면 올림픽 등 대회에 출전하는 운동선수의 약물검사를 떠올린다. 올림픽에서의 도핑 은 20세기 초에도 발견된다. 당시엔 도핑 에 대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1960년 로마올림픽에 서 한 선수가 흥분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하 며 문제가 불거졌고 1968년부터 올림픽 도 핑검사가 시작됐다.

경주마 도핑의 역사는 운동선수의 도핑 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다. 고대 그리스 시대엔 '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인육을 먹 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900년대 초까 지는 경주마에게 마약을 암암리에 투여했 다고 전해진다. 경주 결과에 다분한 영향 을 주었던 경주마 마약투여는 공정성 문제 로 불거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11년 최 초의 경주마 도핑검사가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됐다. 이는 올림픽 도핑검사보다 57년

1947년에는 미국에서 '국제경마화학자협



2020년 2월 열린 '사우디컵'에서 신종 도핑약물 투여로 우승이 취소된 맥시멈 시큐리티. 이 사건으로 조 교사는 징역 5년, 범행에 연루된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회(AORC)'가 결성됐다. 현재 한국을 포함 해 26개국이 소속된 이 협회는 매년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새로운 경주마 도핑약물 과 수법들을 연구, 공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6년 경주마 도핑검사를 시작했다. 한국마사회는 1997년 국제경마 화학자협회 주관 국제숙련도시험에 합격한 이후 올해까지 25년 연속 합격하며 도핑검 사 기술의 공신력을 증명해오고 있다.

경주마 도핑은 지금도 발전하며 공정성 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 2월 2000만 달 러(240억 원)의 세계 최고 상금이 걸린 '사 우디컵'에서 경마계를 충격에 빠트린 도핑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를 우승하며 100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된 미국의 경주마 맥시멈 시큐리티가 경주 후 신종 도핑약물 투여가 발견되며 우승이 취소됐다.

한국마사회 이용덕 도핑검사소장은 "경 마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교묘 해지는 도핑기법을 추격하고자 한국마사 회는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향상에 매진하 고 있다"며 "전통적인 약물군, 금속, 호르 몬, 대사조절제, 유전자요법 등 새로운 도 핑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구 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inkel 정품1000곡/ 가사도 나오는 최신 휴대용 노래방 라디오

▶오리지널 가수와 명곡 가요와의 조화/ 정품 1000곡 출시!

▶ 대형화면에 가사제공/ 1회충전 20시간사용

▶SD메모리카드 -"스마트폰(다른 기기)에서 재생기능"

The BEST Song 1000!! 대찬가요 1000 시중에서 판매하는 7080는 불법음원으로 원곡가수가 아닌 뽕짝 메들리가수 노래에 똑같은 노래를 여러 아마추어가수가 부르는 방식의 불법음원이며 자칫 고장이라도 나면 A/S 또한 불가능하 며 "유통업자가 도산하여 생산이 않되는 상황"이라 이에 많은

선물용으로 최고!

가짜 불법 음원 사용은 대중음악 발전에 큰타격을 줍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새로이 출시된 정품 1000곡 메모리카드에는 오리지널가수의 멋들어진 노래와 또다른 조화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새로이 강진, 임영웅, 영탁등 의 정품음원을 제공하여 최상의 음악을 느낄수 있다.

박현빈, 장윤정에서 임영웅, 영탁, 강진과 진성까지~ 1000곡 수록!

무료상담전화: 1661-1224 입금계좌 농협 351-1015-0904-23 썬모아 서울사당지사: 02-6085-4414





● 최대볼륨 사용시 12시간 사용가능 Max 3W

정품으로 회상의 음질을 즐기세요

🏓 정품SD음원카드 추억의 올드팝송 별매(1000곡) 엘비스, 비틀스 등등